

직유의 구조와 직유 텍스트 읽기 (I)

김창원*

< 차 례 >

- I.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
- II. 직유의 구조
- III. 직유 텍스트 읽기의 방법
- IV. 논의의 지속 방향

I.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

비유는 운율, 이미지 등과 함께 시의 중심 개념이 된다. 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는 비유의 기법을 설명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배우는 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비유를 외면하고 시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비유 중에서도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¹⁾이 모두 노출되고 그들의 관계도 분명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쉬운’ 비유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비유 지도에서도 직유가 그 출발점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직유에 대한 이해가 “같이, 처럼, ~듯하다 등으로 연결된 비유” 하는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²⁾ 이는 직유의 특성과 기능을 단순화하

*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1) 비유는 기본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Tenor)’과 ‘묘사하는 수단(Vehicle)’으로 구성되는데, 이 글에서는 그것을 널리 쓰이는 대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썼다. 하지만 이 용어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고 직유 텍스트 읽기의 폭을 좁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직유에 대한 이해의 단순성은 직유와 은유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직유에서 연결어를 삭제하면 은유가 되고 은유에 연결어를 추가하면 직유가 된다.”거나 “직유는 확장된 은유이고 은유는 압축된 직유”라는 설명 등이 그것이다.³⁾ 직유와 은유 중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이런 설명이 통용되는 이유는, 학교 교육에서 직유에 대한 이해가 초보적이고 도식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글의 출발점이 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직유론을 비유론의 하위 분야로 취급하면서 은유에 비해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컨대 수사학적 접근은 여러 수사적 기교의 분류에 치중하면서 고전 수사학의 논의를 반복·부연하는 데에 머물고,⁴⁾ 언어학적 접근은 문학적 비유 문제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언급하더라도 논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⁵⁾ 시학에서는 직유론을 메타포 이론의 결과지로 처리하여 은유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직유를 설명하고 있다.⁶⁾ 시교육 역시 이러한 흐름의

- 2)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서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 예를 들면 ‘그는 여우처럼 교활하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따위가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김옥동(2002 : 105)과 김봉군(1993 : 595)은 한 발 더 나아가 ‘~와 비슷하다, ~와 다르지 않다, ~와 마찬가지로, ~를 방불하게 한다’ 등도 직유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와 비슷하다’ 류를 ‘같이, 처럼’ 류와 마찬가지로 연결어로 취급한 것이다.
- 3) 이들의 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직 유	은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어가 있는 것 • 분명하고 직접적(→명시적 비유) • 단순한 형태, 밀도가 낮음. • 확장된 은유 • 시교육의 초급 단계에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어가 없는 것 • 모호하고 간접적(→암시적 비유) • 발전된 형태, 밀도가 높음. • 압축된 직유 • 시교육의 고급 단계에서 활용

- 4) 비유의 하위 범주를 직유, 은유, 제유, 환유, 풍유, 의유…… 하는 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 5) 하길종의 작업들(1998 ; 2002 ; 2003a ; 2003b)이 대표적이다.
- 6) 오규원(1990), 김준오(1997)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시론과 시 창작론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이 글의 목표는 이처럼 직유와 관련하여 시교육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를 반성하고, 시교육의 중심 개념으로서 직유의 구조 및 그 읽기 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직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기본적으로 은유에 비해 직유를 낮춰 보거나) 해석을 단순하게 몰고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II. 직유의 구조

1. 통사적 구조

1) 문장 성분의 문제 : 관형어/부사어/서술어로 실현되는 직유

직유를 특징짓는 것은 연결어인 ‘like/as’ 표현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같이, 처럼, ~듯하다……’ 류의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이들이 포함된 시구를 통사적으로 분석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을 ‘같이, 처럼……’ 등과 결합된 말(=보조관념)의 문장 성분에 따라 **관형어형 직유**, **부사어형 직유**, **서술어형 직유**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조관념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비유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1] 말야, 다락 같은 말야,
너는 짐잔도 하다마는

7) “직유법이라고 하더라도 **잘만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은유법에 못지않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김옥동, 2002 : 106)”와 같은 진술(밑줄 인용자)에서 직유를 은유보다 낮게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너는 왜 그리 슬퍼 뵈니?(정지용, 말)

[2]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아픔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김용택, 사람들은 왜 모를까)

[3] 칼에 베인 자리가
열흘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길게 벌어져서
아픔을 설명하고 있는 입 같다
아니다,
눈 같다
아픔 없는 세상을 물끄러미
찾고 있는 눈 같다(이상희, 상처)

[1]은 관형어형 직유로서 ‘다락’이라는 보조관념을 관형구로 만들어서 원관념 ‘말’을 꾸미고, [2]는 부사어형 직유로서 보조관념 ‘꽃’이 ‘피어난다’라는 서술항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한다)을 직접 꾸민다. 곧, 관형어형은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꾸미고 부사어형은 서술항을 꾸미는 차이가 있다. 한편, [3]은 서술어형 직유로서 원관념 ‘상처(칼에 베인 자리)’를 ‘입 같다’거나 ‘눈 같다’고 하여 보조관념과 연결 지어 상세하게 묘사한다.

여기서 관형어형 직유는 원관념(=말)과 보조관념(=다락)의 동일성을 전제로 양자가 직접 연결되면서 독자에게 공통 속성을 찾도록 요구한다. 곧, 독자는 시인이 왜 ‘말’을 ‘다락’ 같다고 했는지 스스로 추리하면서 시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그에 비해 부사어형 직유는 보조관념(=꽃)의 꾸밈을 받는 서술항(=피어난다)이 개입하여, 이것이 원관념(=아픔)과 보조관념(=꽃)을 하나로 묶어 준다. ‘아픔’과 ‘꽃’ 사이에 ‘피어나다’라는 공통 서술항이 개입하는 순간 독자는 그것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비유적 통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시를 읽게 된다. 그러는 동안 원관념(=아픔)은 주어로서 서술어가 자신을 묘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편, 서술어형 직유는 원관념(=상처)의 속성을 보조관념(=입, 눈)으로 간접 묘사하는

데, 여기서 독자는 관형어형 직유와 마찬가지로 ‘상처’가 왜 ‘입’ 같고 ‘눈’ 같은지를 추리하며 읽어야 한다.

말하자면, 독자는 관형어형 직유와 서술어형 직유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매개 의미를 추리해야 하고, 부사어형 직유에서는 시인이 제시한 서술항의 사용 의도를 추리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직유 텍스트 읽기에서 **명사적 직유**(관형어형, 서술어형)와 **동사·형용사적 직유**(부사어형) 읽기의 차이로 이어진다.

2) 자릿수의 문제 : 서술항의 존재와 부재

직유를 형식 기준으로 분류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서술항(predicate)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관형어형 직유와 서술어형 직유는 서술항이 노출되지 않고(원관념과 보조관념만으로 이루어지고), 부사어형 직유는 서술항이 노출된다(원관념, 보조관념, 서술항으로 이루어진다).⁸⁾ 이런 점에서 직유는 크게 **2항 직유**와 **3항 직유**로 나뉘고, 2항 직유는 다시 관형어형 직유와 서술어형 직유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다. 3항 직유는 자동적으로 부사어형 직유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항 직유와 3항 직유가 본질적으로 다른 비유라는 점이다. 비유의 효과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의미론적 긴장에서 태어난다고 할 때, 3항 직유는 그 과정에 서술항이 개입하면서 2항 직유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항 직유가 순간적인 연상과 동일시로 직유를 만들어 낸다면(‘다락 같은 말’, ‘입/눈 같다’) 3항 직유는 대상에 대한 순차적 성찰로 직유를 만들어 낸다(아프다→아픔이 피어난다→(어떻게?)→꽃처럼). 단순화해서 말하면 2항 직유는 비유적 발상의 참신성에, 3항 직유는 비유적 묘사의 섬세성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서술항의 노출 여부만 놓고 보면 3항 직유는 사실상 비유(metaphor)라기

8)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에서 ‘부드러운’을 서술항으로 본다면 관형사형도 서술항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젓가슴’을 ‘부드러운’과 묶는지 ‘흙’과 묶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보다 비교(comparison)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국어학에서는 이를 ‘축어적 직유’나 ‘동등 비교’로 처리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비교점 중심으로 확연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⁹⁾ 엄밀하게 말하면 3항 직유에서 비유의 효과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가 아니라 ‘원관념과 서술항 사이’에서 빛어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2]를 예로 들면, ‘아픔’과 ‘꽃’ 사이가 아니라 ‘아픔은 피어난다’에서 일차적인 비유의 효과가 나온다는 뜻이다. ‘꽃처럼 피어나는’ 것은 이차적인 효과일 뿐이다.¹⁰⁾ 따라서 ‘직유=명유(明喻), 은유=암유(暗喻)’라고 하는 일반적 도식도 틀린 것이 된다. 서술항을 중심으로 보면 직유 중 3항 직유만이 명유에 해당하고(서술항이 드러나 있기 때문), 2항 직유는 은유와 마찬가지로 암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술항이 숨어 있고, 독자가 그것을 추리·상상해 내기 때문).

3) 중층성의 문제 : 단순한 직유와 복잡한 직유

직유는 구 단위로 완결될 수도 있고(관형어형 직유와 부사어형 직유) 문장 단위로 완결될 수도 있다(서술어형 직유). 이 발상을 확장하면 문장 이상 단위의 직유도 가능하다. 나아가, 한 작품에서 구나 문장 단위의 직유들이 같은 값을 가지고 나열될 수도 있다. 또한 하나의 큰 비유(직유 혹은 은유) 안에 다른 작은 비유가 포함될 수도 있다.¹¹⁾ 이들 각각을 **단순 직유, 확장 직유, 병렬 직유, 그리고 복합 비유**라고 하자.

[4] 하얀 천사(天使)가 나의 폐(肺)에 가벼이 노크한다

황혼(黃昏) 같은 폐(肺) 속에서는 고요히 물이 끓고 있다(이상, 객혈의

9) 예컨대 “강낭콩처럼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처럼 붉은/ 그 마음 흘러라.(변영로, 논개)”를 “강낭콩보다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붉은/ 그 마음 흘러라.”로 바꾸었다고 하자. 열린 보면 전자를 직유, 후자를 비교라고 말하겠지만, 이들 사이에 미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이러한 과정은 바로 뒤에서 볼 ‘복합 비유’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대부분의 3항 직유는 복합 비유의 속성을 띤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과 서술항, 보조관념과 서술항 사이에 모두 비유적 발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1) 윌라이트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 ‘액자식 은유’라고 하였다.

아침)

[5] 사향(麝香) 박하(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배암……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아리나

꽃대님 같다.(서정주, 화사)

[6] 풍경(風景)이 풍경(風景)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이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速度)가 속도(速度)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줄렬(拙劣)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댄 데에서 오고

구원(救援)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오고

절망(絶望)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김수영, 절망)

[4]가 구 단위의 직유로서 단순 직유임은 분명하다. 그에 비해 [5]는 원관념(=뺨)과 보조관념(=꽃대님)의 관계만 보면 단순 직유이나, ‘꽃대님 같다’가 그 앞의 행 전체를 비유한다는 점에서 [4]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한편, [6]은 다섯 번 반복되는 ‘~것처럼’이 ‘절망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원관념을 비유한다는 점에서 병렬 직유가 된다.

병렬 직유가 동일한 유형의 직유들을 결합한 것이라면 복합 비유는 직유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비유들을 결합한 것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비유를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비유 전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직유와 은유의 복합 비유다.

[7]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서정주, 문둥이)

[7]은 표면상 직유로 보이지만 그 안에 은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 비유이다. 표층 구조로는 ‘울음’이 원관념, ‘꽃’이 보조관념이 되고 그

들을 ‘붉은’이라는 서술항이 매개하는 직유이지만, 심층 구조로는 ‘꽃처럼 붉은’이라는 직유와 ‘붉은 울음’이라는 은유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효과가 ‘꽃처럼 붉은’이 아니라 ‘붉은 울음’에서 탄생한다는 점이다. ‘꽃처럼 붉은’은 형태상 직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상에 더 가까우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울음’이 ‘붉다’는 데 있다. 즉 원관념(=울음)과 보조관념(=꽃)의 관계보다 원관념(=울음)과 서술항(=붉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직유, 은유 등의 서로 다른 비유들이 겹치는 경우, 어느 것이 중심 비유인지를 판정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2. 의미적 구조

1) 의미장(場)의 문제 :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속성

비유의 의미 구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 관계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다. 예컨대 원관념-보조관념이 전체와 부분, 혹은 상위와 하위 관계라면 제유(提喻)가 되고, 유사 관계라면 직유(直喩)와 은유(隱喩)가 된다. 또 이들이 인접 관계에 있다면 환유(換喩)가 된다.

직유와 은유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사 관계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관계를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면 몇 가지의 이형태를 찾을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둘을 <추상·개념·관념> 대 <구체·사물·행위>로 대비하는 방식이다.¹²⁾

[8] 추상(보조관념) → 추상(원관념)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전봉건, 휴전선)

12) 오규원(1990 : 271)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사물인가 관념인가 또는 정황인가에 따라 비유를 분류하였다.

[9] 구체(보조관념) → 추상(원관념)

산이 날 에워싸고
 그름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10] 추상(보조관념) → 구체(원관념)

기러기에게는 찬 하늘 서릿발이 아니다.
 진실로 쓰리고 아픈 것은
 공중에서도 강을 건너는 일이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도도(滔滔)한
저 순리(順理)와 같은 강을 질러가는 일이다.(박재삼, 그 기러기 마음
 을 나는 안다)

[11] 구체(보조관념) → 구체(원관념)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대(김광균, 와사등)

[8]은 ‘고구려, 신라’라는 보조관념으로 ‘정신, 이야기’라는 원관념을 비유했는데, 이들은 모두 추상 명사들이다. 곧, 추상적 관념으로써 관념을 비유했던 형태다. [9]는 ‘구름’과 ‘바람’이라는 구체적 명사로써 ‘삶’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비유했다. 그에 비해 [10]은 ‘순리’라는 추상 명사로써 ‘강’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비유했고, [11]은 ‘묘석’, ‘잡초’라는 구체 명사로써 역시 구체 명사인 ‘고층’, ‘야경’을 비유했다.

직유를 포함한 모든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속성에 따라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체로 원관념으로는 추상·구체가 두루 다루어지지만 보조관념으로는 구체적 사상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상을 구체적, 감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그러려면 보조관념이 구체적인 단어라야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0]처럼 추상으로써 구체를 비유하는 경우는 매우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꽃 같은 너의 마음(구체→추상)’보다 ‘너의 마음 같은 꽃(추

상→구체)’이 더 인상적인 이유다.

2) 상(相)의 문제 : 의미 실현의 방향성

비유의 의도는 (다른 수사법들과 마찬가지로) 더 정밀하고 생생한 이미지와 풍부한 울림을 얻는 데 있다. 언어와 사고의 선조성 때문에 이 ‘울림’은 일정한 방향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영주(2005)는 그 특징을 의미 실현의 방향성, 곧 벡터에서 찾는다.

[12]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幸福)한 예수·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十字架)가 허락(許諾)된다면(윤동주, 십자가)

여기서 ‘처럼’은 둘째 행에서 넷째 행으로 시상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며, 반대 방향으로는 시상이 흘러가지 않는다. ‘A같은 B’ 혹은 ‘A처럼 B하다’라면 시상은 반드시 A로부터 B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직유는 ‘보조관념으로부터 원관념의 방향으로’ 의미가 실현되어 가며, 이를 **직유의 벡터**라고 말할 수 있다.¹³⁾

직유의 벡터를 설명하는 데 제일 쉬운 예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순서를 바꿔 보는 일이다. 김옥동(2002 : 112~113)은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데 비해 직유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은유에는 벡터가 작용하고 직유에는 작용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벡터의 작용은 직유에서 더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3) 직유를 은유로 바꾸면 의미가 죽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직유의 벡터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를 은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13]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업니까.(한용운,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연꽃 같은 발꿈치’와 ‘옥 같은 손’을 ‘발꿈치 같은 연꽃’과 ‘손 같은 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직유에는 먼저 ‘연꽃, 옥’을 연상하고 그로부터 ‘발꿈치, 손’으로 이어지는 직유의 백터가 작용하는 셈이다. 그런 연후에 다시 ‘저녁놀’을 ‘연꽃 같은 발꿈치’와 ‘옥 같은 손’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는 은유의 백터가 작용한다. 이러한 복합 비유는 비유의 백터가 전후로 교차하면서 복잡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벗어나면 시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Ⅲ. 직유 텍스트 읽기의 방법

1. 직유 텍스트 읽기의 층위

1) 시구의 해석 : 문장 성분과 서술항의 문제

직유를 특징짓는 것은 연결어의 존재라고 하였다. 시구 단위에서 연결어가 나오는 것은 관형어형 직유와 부사어형 직유인데, 앞에서 잠깐 봤듯이 이들은 읽기 특성이 서로 다르다. 관형어형이 2항 직유로서 서술항이 없는 데 반해 부사어형은 3항 직유로서 서술항 읽기가 해석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14]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나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살단 같은 머리를 감었구나,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5] 떠받는 명고(名鼓)인데 잔가락을 온통 잊으오
 떡 궁! 동중정(動中靜)이오 소란 속에 고요 있어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 가오(김영랑, 북)

독자는 [14]의 관형어형 직유를 읽으면서 원관념(=머리)과 보조관념(=삼단)의 의미 관계를 추측하여 서술항을 직접 추출한다. 이 경우 ‘삼단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독자의 문화 지식과 개인 체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것이다(물론 그 해석은 타당성 차원에서 검증받는다). 교사라면 학생들 스스로 그 의미를 떠올리고, 떠올린 의미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 풍부한 의미를 이끌어내도록 하려고 애쓸 것이다. 학생이라면 처음 떠올렸던 단순한 이미지를 교사 및 동료와의 교류를 거치면서 더 생생하고 더 풍부하게 키워 가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관형어형 직유의 표현 과정에서 원관념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보조관념을 끌어오느냐가 관건이 되고, 해석 과정에서는 보조관념으로부터 원관념의 어떤 속성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된다.

[15]는 전형적인 부사어형 직유로서, 독자는 보조관념(=가을)에 대한 서술(=익어 가오)과 원관념(=인생)에 대한 서술(=익어 가오)의 의미 관계를 대비하여 직유의 벡터를 추출한다(‘가을이 익어 가듯이’ → ‘인생도 익어 가오’). 이 경우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익어 가오’라는 서술항을 중심으로 결합하면서 ‘가을(=구체물)’과 ‘인생(=추상 명사)’의 공통점·차이점으로부터 새로운 의미장을 형성한다. 교사라면 시인이 왜 인생을 ‘익어 간다’고 표현했는지와 함께 왜 그것을 ‘가을같이 익어 간다’고 표현했는지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 결국 부사어형 직유의 표현 과정에서는 어떤 서술항을 선택하느냐와 함께 그 서술항을 꾸미기 위해 어떤 보조관념을 끌어오느냐가 관건이 되고, 해석 과정에서는 보조관념과 서술항, 서술항과 원관념이 2단계로 실현하는 의미론적 벡터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2) 시상 전개와 해석 : 의미 실현의 방향성 문제

시구 단위의 직유도 의미 실현의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구를 넘어서는 직유는 그 방향성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경우 은유는 벡터가 작용하지 않거나 ‘중양에서 만난다’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데 비해, 직유는 한쪽 방향으로 강한 벡터가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16]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서정주, 광화문)

[17]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서정주, 무등을 보며)

같은 작가의 두 작품을 비교할 때, [16]은 ‘광화문’과 ‘종교’를 완벽하게 동일시하면서 의미론적 틈을 남겨 두지 않는 데 비해 [17]은 첫째 행이 둘째 행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첫째 행으로부터 둘째 행으로 시상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첫째 행의 ‘기르기’와 둘째 행의 ‘기르기’ 사이에는 약간의 의미론적 틈이 생기는데, 이러한 ‘기르기’의 차이로 인한 흔들림이 [17]의 미적 효과를 낳는다. ‘청산이 지란을 기르는’ 양상과 ‘우리가 새끼들을 기르는’ 양상 사이의 의미론적 밀고당김이 시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16]은 단호한 서술이 주는 낯선 충격이 미적 효과의 근원이 된다. 비유컨대 [16]이 순간의 이미지를 포착한 정지 화상이라면 [17]은 장면이 점차 변해 가는 모핑(morphing) 화상이라 할 것이고, 직유 텍스트 읽기에는 모핑 읽기와 같은 사고의 벡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직유에서 의미론적 벡터가 통사적 순서대로(선조적으로) 나타나는지 거꾸로(소급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순행 직유**와 **역행 직유**를 구분할 수도 있다

[18]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서정주, 추천사)

[19]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윤동주, 별 헤는 밤)

[18]은 [17]과 마찬가지로 첫째 행으로부터 둘째 행으로 의미가 실현 되는 순행 직유이다. 문장 구조상 관형어형은 거의 순행 직유이고 부사어 형도 순행 직유가 많지만, 예외도 많다(그런 경우를 수사법에서는 도치법이라고 한다). 순행 직유는 직유의 백터가 앞에서 뒤로 진행하며, 독자는 그 순서 대로 의미를 해석해 가게 된다. 말하자면 보조관념을 먼저 해석하고, 그로부터 원관념으로 의미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읽는다.

그에 비해 [19]는 첫째 행의 의미를 둘째 행으로 보완해야 하는 역행 직유이다. 곧 직유의 백터가 뒤에서 앞으로 진행하며, 독자는 행 단위로 시를 읽으면서 동시에 소급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서술어형 직유에 역행 직유가 많지만, 이 역시 예외가 있다. 이런 텍스트를 읽으려면 독자는 원관념을 먼저 해석한 뒤, 보조관념으로써 그 의미를 구체화·상세화·한정하게 된다.

3) 맥락의 해석 : 직유의 텍스트 내적/외적 확장 문제

구와 행 단위의 직유를 넘어서는 직유도 있다. 예컨대 직유의 연쇄와 중첩(=병렬 직유, 복합 비유)은 여러 보조관념들이 하나의 거대 원관념으로 수렴하면서 의미를 실현하는데, 이는 직유의 텍스트 내적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자는 개별 직유들을 해석함과 동시에, 또는 그런 해석들을 누적해 가며 큰 단위의 직유를 해석해야 한다.

[20] 내 손자의 손자와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水原白氏 定州白村의 힘세고
꽃꽃하나 어질고 정 많은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의 비 같
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 아 슬픔을 담는 것(백석, 목구)

[20]은 ‘호랑이, 곰, 소……’로 끝없을 듯이 이어지는 보조관념들이 각

각 ‘슬픔’이라는 원관념과 대응하면서 조금씩 편차가 있는 의미들을 형성해 내고, 그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무정형(無定型)의 의미를 만들어 내게 된다. 시인은 그 커다란 의미를 보고 “아”라는 감탄사를 쓰지 않을 수 없었거니와, 이런 경우 독자는 세세한 개별 직유의 의미보다는 그것들이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거대 직유의 의미에 더 주목하게 된다.

[21]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김현승, 가을의 기도)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직유도 문화 맥락에 크게 의존하는데, [21]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시인은 ‘호올로 있게 하소서’라는 구문을 원관념으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를 보조관념으로 활용했는데, 그 중심에는 ‘까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의 ‘까마귀’는 물론 민화(民畵)의 까마귀도 박인로의 까마귀도 아닌, 오로지 김현승만의 까마귀이다. 그러면서도 이 ‘까마귀’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접점에 위태롭게 서 있다. 또한 이 직유의 서술항인 ‘호올로’는 김현승의 ‘고독’과 쉽게 연결되는바, 이 모든 것이 [21]에 담겨 있는 문화적 맥락이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문화 맥락 자체를 직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직유를 텍스트 외적 맥락의 하위 텍스트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유 텍스트 읽기의 전략

1) 장(場)의 충돌과 서술항 재구

직유 텍스트 읽기는 더 큰 개념인 비유 텍스트 읽기를 한 방향으로 특

성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특성화는 원관념-보조관념의 의미장을 충돌시키고 그로부터 서술항을 추출하거나 재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Searl의 방식을 원용하면 ‘비유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비유적 읽기의 출발점이 된다(안신호·이유갑, 1988). 직유의 경우 ‘같이, 처럼, ~듯하다’와 같은 연결어의 존재가 직유의 표지가 되며,¹⁴⁾ 연결어가 포함된 비유를 인지하면서 직유 텍스트 읽기의 전략이 발동한다.

[22]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꽃대 끝에
예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유치환, 깃발)

이 시를 보며 독자는 일단 ‘물결같이’에서 직유를 인식하고, 축어적 읽기에서 비유적 읽기로 읽기 모드를 바꾼다(사실 이 작품의 경우 처음부터 비유적 읽기 전략이 작동 중이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자). 이 직유는 원관념 ‘순정’과 보조관념 ‘물결’, 그리고 서술항 ‘바람에 나부끼고’로 구성되는데, 이때 구체적 사물인 보조관념(=물결)으로써 추상적 정서인 원관념(=순정)을 비유한다는 점에서 예시 [9]와 같은 ‘구체→추상’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매개하는 서술항은 구체적인 운동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물결’과 ‘바람’은 같은 ‘구체’의 의미장에 속하기 때문에 축어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원관념 ‘순정’은 ‘바람’과, 더 나아가 ‘나부끼다’와 얼른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유가 개입하며, 그런 점에서 이 시행은 복합 비유에 해당한다. 독자는 비유 안에 안긴 새로운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

이 ‘**안긴 비유**’¹⁵⁾는 ‘물결’이라는 원관념을 ‘바람에 나부끼고’라는 보조관념으로 비유하는 형식을 띤다. **안은 비유**의 원관념이 ‘순정’인 데 비

14) 물론 이와 같은 말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두 직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각주 9)에서 언급한 ‘동등 비교’나 예시 [7]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연상’인데, 직유와 이들 인접 개념의 구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일단 직유만을 대상으로 한다.

15) 내포 비유, 하위 비유 등의 용어를 쓸 수도 있다. 여기서는 통사론의 용어를 빌려 왔다.

해 안긴 비유의 원관념은 ‘물결’이 되며, 안은 비유에서의 서술항인 ‘바람에 나부끼고’는 안긴 비유에서 보조관념으로 상승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안긴 비유의 서술항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왜 시인은 ‘물결이 바람에 나부끼다’고 했는가? 일단 ‘바람’이라는 명사와 ‘나부끼다’라는 동사가 자유·갈망·흔들림 등의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환기하기 때문이라고 해 보자. ‘흔들리다, 날리다’ 등과 대비되는 ‘나부끼다’ 고유의 의미가 여기에 개입하는데, 이 해석된 의미가 안긴 비유에서 서술항이 된다.

이처럼 안은 비유와 안긴 비유로 이루어진 것이 이 행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시 전체, 곧 ‘순정’을 포함하여 ‘아우성, 손수건, 애수,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 모두 ‘깃발’의 은유인 것이다. 곧, 이 시를 읽으려면 시 전체를 관통하는 상위의 비유도 해석해야 한다. 이 상위 비유에서 원관념은 구체적 사물인 ‘깃발’이고 보조관념은 추상적 정서인 ‘순정’이다. 그리고 상위 비유의 서술항은 ‘물결’ 그 자체가 된다. ‘순정’, ‘물결’, ‘나부끼다’라는 시어는 <안긴 비유-안은 비유-상위 비유>의 성층 구조에서 각기 원관념과 보조관념, 서술항의 역할을 차례로 바꿔 가며 상승한다.¹⁶⁾

	원관념	보조 관념	서술항
(:)	(??)	(깃발)	순정
상위 비유	(깃발)	순정	물결
안은 비유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안긴 비유	물결	바람에 나부끼다	(자유·갈망·흔들림……)
(:)	바람에 나부끼다	(??)	(??)

이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 서술항이 층위를 달리 하며 계속 확산될

16) 표에서 각 항목은 비유의 층위가 상승함에 따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계속 자리를 옮겨 간다. 이보다 더 상위, 더 하위의 층을 상정하면 텍스트의 의미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텍스트에서는 노출되지 않으나 독자가 발견 또는 구성해야 하는 의미이다.

때, 텍스트 해석의 축은 서술항이 무엇인지를 재구성하는 일이 된다. 예시 [22]에서는 안긴 비유를 재구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독자의 해석에 따라 더 풍부한 서술항을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이 시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깃발-순정-물결>로 교차하며 충돌하는 양상을 바탕으로 ‘나부끼다’라는 기본 서술항이 자아내는 의미를 읽어 내야 한다. 이때 ‘나부끼다’는 안긴 비유의 보조관념과 안은 비유의 서술항 자리를 오르내리며 의미를 실현하는바, 층위에 따라 달라지는 서술항의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올곧은 작품 읽기가 가능해진다.

2) 벡터의 유표화

직유의 의미가 연결어를 사이에 두고 보조관념으로부터 원관념으로 투사하며 실현된다고 할 때, 텍스트 해석을 위해서는 그 벡터를 감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때의 ‘벡터’는 방향뿐 아니라 의미 실현의 미묘한 양상도 포함하는 용어다. 물리적 방향은 일단 <보조관념 → 원관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벡터에 담겨 있는 시학적 울림이다.

[23] 흐르는 물처럼

네계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영기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은 카페인처럼

네계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살을 거머잡는 죽음처럼(최승자, 네계로)

여기서 ‘가는’ 주체는 ‘나’이고, 내가 ‘네계로’ 가는 양상이나 속성이 병렬 직유의 원관념이 된다. 가기는 가되 ‘물처럼’ 간다는 뜻이다. 이것의 보조관념은 ‘알콜·니코틴·카페인·매독균·죽음’인바, 이것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같이 파괴적이고 자폐적이며 치명적인 중독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단일한 계열체를 이룬다. 이때 <나→너>의 벡터와 <물→알콜→(……)→죽음>의 벡터가 겹치면서 ‘네게로 가리’라는 서술향을 강조함으로써 시의 주제가 드러난다. 곧, 이 작품은 하나의 원관념에 ‘~처럼’으로 매개되는 보조관념이 계속 누적되면서 파괴로 다가가는 과정 자체를 다뤘다고 할 수 있다.

벡터의 유표화는 서사 텍스트 읽기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만 서사의 벡터가 시간이라는 축을 바탕으로 한다면 직유의 벡터는 연상과 상상의 축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저 유명한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A).’와 ‘왕이 죽자 왕비가 죽었다(B).’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이들과 ‘왕이 죽듯이 왕비가 죽었다(C).’ 사이에 개재한다. A와 B의 차이가 시간을 전제한 인과적 관계의 차이라면 A와 C의 차이는 시간과 무관한 양태와 정서의 차이이다. C는 A를 포함하면서, 왕비의 심리와 죽는 과정을 B보다 더 절실하게 묘사한다.

3) 소단위-대단위 주제 구성

굳이 직유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오래 전부터 시 읽기의 층위를 <시구-전체 시상-맥락>으로 위계화하는 방법이 쓰여 왔다. 대체로 단순 직유는 소단위 주제를 구성하지만, 그것들이 확장·병렬·복합되면서 대단위 주제를 구성하는 양상을 이해해야 텍스트 해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24] 씻은 무 같다든가,
 뛰는 생선 같다든가,
 (진부한 말이지만)
 그렇게 젊은 날은
 젊음 하나만도
 빛나는 장식이 아니었겠는가.
 (중략)

꽃을 더듬는
내 흰 손이
물기 없이 마른
한 장의 낙엽처럼 쓸쓸해져(홍윤숙, 장식론)

이 시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은 각기 다른 소단위 주제를 함의한다. 하지만 ‘씻은 무 같다’, ‘튀는 생선 같다’가 환기하는 의미와 ‘한 장의 낙엽처럼 쓸쓸해져’가 환기하는 의미는 분명히 대비된다. 이처럼 대비되는 두 의미가 병치될 때 작품 전체의 주제가 드러나는바, 이 과정은 단순 직유와 단순 직유를 대비하며 확장 직유를 해석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 작품의 경우 ‘무’와 ‘생선’이 환기하는 (젊은) 여성의 싱싱한 이미지는 ‘물기 없이 마른 한 장의 낙엽’과 대비될 때 더 선명해지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한 장의 낙엽처럼 쓸쓸해져’는 심정은 ‘무 같고 생선 같던’ 상황과 병치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시교육에서는 직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적 장치들 소단위 주제에 국한하여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대단위 주제와 연관 지어 읽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IV. 논의의 지속 방향

시교육에서 직유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직유 지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체계로의 연장이고, 또 하나는 은유 등을 포함하는 비유 일반으로의 확장이다. 이 글에서는 직유의 구조를 통사적, 의미적 구조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하고, 직유 텍스트 읽기의 방법을 읽기의 층위와 전략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념과 원리를 추출해 냈는데, 이들을 교육적으로 재개념화, 재구조화하면 직유, 나아가 비유 지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정련할 수 있다.

- (1) 직유는 원관념, 보조관념, 연결어, 서술항(때에 따라 생략됨)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으로 가장 완전한 비유이다. 이 형식적 완전성 때문에 직유는 가장 기초적인 비유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바로 이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 (2) 직유는 형식의 측면에서 <2항 직유-3항 직유>, <관형어형 직유-부사어형 직유-서술어형 직유>, <단순 직유-확장 직유-병렬 직유-복합 비유>의 대립 쌍으로 나뉘고, 이들은 각기 다른 심미적 효과를 자아낸다.
- (3) 직유는 의미 실현의 측면에서 <보조관념 → 원관념> 방향으로의 벡터가 작용하는데, 이 관계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의미장을 중심으로 ‘추상 → 추상’, ‘추상 → 구체’, ‘구체 → 추상’, ‘구체 → 구체’의 4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마다 다른 상상력을 발동한다. 이러한 벡터는 순행 직유와 역행 직유의 차이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 (4) 직유 텍스트 읽기는 시구 해석에서는 서술항의 재구에, 시상 전개 해석에서는 의미 실현의 벡터 이해에, 맥락 해석에서는 텍스트 내적·외적 맥락을 활용한 문화적 이해에 초점이 놓인다.
- (5) 독자는 직유 텍스트를 읽으면서 공간적으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장을 충돌시켜 서술항을 재구하기’, 시간적으로는 ‘의미 실현의 벡터를 유표화하기’를 주요 전략으로 활용한다.
- (6) 직유 텍스트 읽기는 소단위 주제에서 대단위 주제 구성으로 나아가는바, 이는 <단순 직유 → 확장 직유·병렬 직유·복합 비유>의 체계와 대응한다.

이러한 개념과 원리를 실제 시교육의 장에서 활용하려면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논의할 것이다. 「직유의 구조와 직유 텍스트 읽기(II)」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직유 텍스트 읽기 지도를 위한 사전 점검 요소
2. 직유 텍스트 읽기 지도의 내용
3. 직유 텍스트 읽기 지도의 방법
4. 직유 텍스트 읽기 지도의 실제-정지용의 <유리창>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2010. 6. 30. 투고되었으며, 2010. 7. 15. 심사가 시작되어 2010.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봉균(1993), 『문장 기술론』, 제3판, 삼영사.
-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준오(1997), 『시론』, 삼지원.
- 김진우(1998), 『시와 언어』, 한국문화사.
- 박항식(1976), 『수사학』, 현대문학사.
- 안신호 · 이유갑(1988), “아동의 비유 이해에서의 직유 표현의 효과”, 『심리학의연구문 제』 3, 서울대심리과학연구소.
- 양왕용(1992), “직유의 효과와 그 특성 : 교사를 위한 시론”, 『시문학』 1992.1(246), 시문학사.
- 오규원(1990),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 이승하(2003), “좋은 시인은 비유를 잘 구사한다 · 1 : 수사법의 종류와 활용 방법”, 『문학사상』 2003. 9(371), 문학사상사.
- 이영주(2005), “직유의 효과에 관한 새로운 이해—직유의 벡터와 그 작용을 중심으로”, 『수사학』 3, 한국수사학회.
- 이종열(2003),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 이형기(1990), “비유의 원리와 직유의 표현 효과 : 시, 어떻게 쓸 것인가”, 『문학사상』 1990.7(213), 문학사상사.
- 하길중(1998), “비교와 비유의 의미 : 비교와 직유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7, 한국어학회.
- 하길중(2002), “의사 직유의 의미”, 『한국어교육』 17, 한국어문교육학회.
- 하길중(2003a),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직유 표현의 특성”, 『한국어교육』 18, 한국어문교육학회.
- 하길중(2003b), “직유 표현의 유형”, 『한글』 261, 한글학회.
- 황석자(1997), “은유, 직유와 共示 이론, 지시 관계référence”, 『한국프랑스논집』 22, 한국프랑스학회.
- Gibbs/나익주 역(2003),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 Lakoff & Turner/이기우 · 양병호 역(1996),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 Wheelwright, P. E./김태욱 역(1987), 『은유와 실제』, 문학과지성사.

<초록>

직유의 구조와 직유 텍스트 읽기(I)

김창원

직유는 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지만, 학교에서는 그저 “같이, 처럼, ~듯하다’ 등이 사용된 비유의 한 종류”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텍스트의 통사적, 의미적 구조를 바탕으로 직유의 유형을 분류하고, 텍스트 읽기의 층위와 전략 중심으로 직유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의 2부에서는 직유 텍스트 읽기의 지도 내용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직유를 비롯한 시적 개념의 가치를 재개념화하고 시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직유는 원관념, 보조관념, 연결어, 서술항(때에 따라 생략됨)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으로 가장 완전한 비유이다. 이 형식적 완전성 때문에 직유는 가장 기초적인 비유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바로 이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 (2) 직유는 형식의 측면에서 <2항 직유-3항 직유>, <관형어형 직유-부사어형 직유-서술어형 직유>, <단순 직유-확장 직유-병렬 직유-복합 비유>의 대립 쌍으로 나뉘고, 이들은 각기 다른 심미적 효과를 자아낸다.
- (3) 직유는 의미 실현의 측면에서 <보조관념 → 원관념> 방향으로의 벡터가 작용하는데, 이 관계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의미장을 중심으로 ‘추상 → 추상’, ‘추상 → 구체’, ‘구체 → 추상’, ‘구체 → 구체’의 4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마다 다른 상상력을 발동한다. 이러한 벡터는 순행 직유와 역행 직유의 차이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 (4) 직유 텍스트 읽기는 시구 해석에서는 서술항의 재구에, 시상 전개해석에서는 의미 실현의 벡터 이해에, 맥락 해석에서는 텍스트 내적·외적 맥

락을 활용한 문화적 이해에 초점이 놓인다.

- (5) 독자는 직유 텍스트를 읽으면서 공간적으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장을 충돌시켜 서술항을 재구하기’, 시간적으로는 ‘의미 실현의 벡터를 유표화하기’를 주요 전략으로 활용한다.
- (6) 직유 텍스트 읽기는 소단위 주제에서 대단위 주제 구성으로 나아가는바, 이는 <단순 직유 → 확장 직유 · 병렬 직유 · 복합 비유>의 체계와 대응한다.

【핵심어】 직유, 직유 텍스트, 연결어, 서술항, 2항 직유, 3항 직유, 관형어형 직유, 부사어형 직유, 서술어형 직유, 단순 직유, 확장 직유, 병렬 직유, 복합 비유, 순행 직유, 역행 직유,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장, 의미 실현의 벡터

<Abstract>

Structure of Simile and the Methods of Reading Simile Text

Kim, Chang-won

Simi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teaching poetry. However, in most literature classes, simile is taught as simple as a kind of figure of speech that is connected by two words such as 'like', 'as', or etc. I classified simile into different styles according to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in this paper and investigated reading methods of simile text in terms of levels and strategies of text reading. Based on this argument, in following papers, there will be practical discussions on contents and methods of teaching 'how to read the simile text'. Accordingly, rediscovery of the value of simile and systematization of substances of poetry education are expected.

To summarize this paper :

- (1) Simile, by syntax, can be categorized into following 3 subclasses ;
<2 terms simile-3 terms simile>, <simile by pronoun-simile by adverb-simile by predicate>, and <simple simile-expanded simile-parallel simile-complex simile>.
- (2) The vector of embodying poetic meaning, in a perspective of semantics, acts from vehicle to tenor in simile text. This relationship is again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according to abstractness(Ab) and concreteness(Co) of vehicle and tenor ;
Co → Co, Co → Ab, Ab → Co, Ab → Ab styles.
- (3) While reading simile text, readers reconstruct the 'predicate' in terms of stanza, analyze the vector of simile in terms of text, and finally figure out the cultural meaning of simile in terms of

context.

- (4) Readers utilize two strategies as reading simile text ; overcoming the confliction of two fields of meaning-of tenor and of vehicle-in order to reconstruct the predicate, and remarking the vector of simile as they go through the text reading.

【Key words】 simile, 2-terms simile, 3-terms simile, simile by pronoun, simile by adverb, simile by predicate, simple simile, expanded simile, parallel simile, complex simile, fields of meaning of tenor and vehicle, vector of embodying poetic meaning